

나주 배 농가 파산위기

나주 남평-다도농협 통합 지리경쟁력 갖춰 8월 새 출발

나주시 관내 농협 가운데 최초로 남평농협과 다도농협이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속에 통합을 추진, 지리 경쟁력을 갖춘 조합으로 새출발 한다.

24일 나주남평농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도농협과의 합병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4.4%의 조합원들이 합병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남평농협 조합원 1천994명 가운데 1천635명(82%)이 투표에 참여 해 찬성 1천380명, 반대 228명, 무효 27명으로 찬성률이 84.4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남평농협은 25일 조합합병 공고를 마치고 재건과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이행과 정관 변경, 농림부 인가, 합병등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중국산 밀물...재고량 무려 5천t 농협, 농림부에 소비촉진책 촉구

최근 중국산 신고배 재배와 국내 소비부진 등으로 배 재고량이 급증,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게 되는 등 배 농가들의 붕괴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24일 나주배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배 주산지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19일 농림부를 방문, 배 값 폭락 등으로 사상 유래없는 재고량이 쌓여 배 농가들이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배 유통을 위한 소비촉진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생산비마저 건질 수 없는 배 재배농가를 위해 농림부가 현 재고량의 10% 내외(3천t)를 긴급수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폭락한 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비촉진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건의안이 마련된 것은 나주배농협을 비롯한 전국 배 주산지 농협의 배 재고 물량이 사상 유래없는 2만6천200t이나 쌓여 있으나 판로 확보의 길이 전혀 없어 긴급히 정부 수매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보성 녹돈' 최고급 명성 연일 전국 언론에 소개 인기

전국 최대의 차(茶) 생산지 보성에 차밭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녹차의 맛을 익힌 '보성녹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녹돈 양돈영농조합법인(회장 김재중)과 보성농협(조합장 문병안)은 지난 3월 16일 '보성농협 녹돈'이란 새 공동브랜드를 출시, 현재 최고급 상품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보성녹돈은 돈육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고 짭짤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녹차에 함유돼 있는 타닌(카테킨)성분이 항암 효과를 비롯해 면역력 증강 등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되면서 '녹차먹인 돼지고기'가 연일 전국 방송망을 타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t, 안성 7천t, 평택 7천t 등에 이르는 실정이다. 또한 15kg 1박스당 실질 생산비인 1만650원에도 판로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농가 1인당 평균 부채가 3천887만원에 달하는 등 재배농가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 같이 사상 유래없는 재고물량이 쌓여 가는 것은 오프믹스와 키위 등 외국산 과일 수입에 따른 소비부진을 비롯해, 그동안 가격 보전 역할을 해 왔던 수출길이 막힌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주배농협 민명수 과장은 "3~4년전 동남아로 500여 t 이상이 수출됐던 물량이 중국의 저가 경쟁에 밀려 수출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난해까지 수출해 왔던 캐나다 등의 물량이 중국에 잠식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2천여 t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대미수출 물량도 중국이 수출단지로 지정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큰바다 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세계 배 생산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3~4년전 부터 국내산 신고배를 조직적으로 대량 재배해 15kg 1박스의 생산비가 국내가격의 20% (2천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보성녹돈은 1997년 저지방, 저콜레스테롤과 식중독(0-157균) 완전 소멸효과가 있어 국내최초 기능성 브랜드 돈육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과학적으로 입증 받았다. '보성농협녹돈'은 보성녹차의 웰빙 기능성 식품으로 시장성이 높은 KBS-1TV '6시 내 고향' 등 인기 프로그램에 단골 메뉴다. /보성=안규필기자 gjahn@

주민들이 힘모아 축제 열어요

장성 오현마을 28~30일 '제1회 자운영 축제' 개최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자치 단체가 주최하는 것과는 달리 시골 마을 주민들이 힘모아 축제를 마련해 화제가 됐다.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오현마을 주민들은 24일 '어린이 절의 봄날'을 화성케 할 '제1회 자운영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만여평의 친환경 쌀 생산 단지에서 물결치는 자운영 꽃을 배경으로 28~30일 까지 3일간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생태체험과 놀이문화 체험, 친환경농산물판매 코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마을 산책로를 걷다가 마음에 드는 풀을 뜯어와 가족이 직접 만든 편백나무 망치로 짠 손수건 직접 만들기, 통일을 염원하며 북한의 지명을 적은 향아리에 화살을 던져 넣는 통일 투호놀이, 친환경농산물에 자라는 나뭇가시 채취 등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친환경 쌀을 원료로 인절미를 만들어 시식·판매하며, 그 인절미를 만들 때 절구로 내리치는 딱배지기, 직접 재료를 갈라 자운영화전, 파전 등 봄나물 맛을

즐길 수 있는 음식만들기 체험 등이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친환경 쌀, 민들레차, 민들레 화주, 팥죽, 콩, 녹두, 파 등 각종 무공해 농산물을 준비해 놓고 판매한다. 김승희 이장은 "매년 봄 5만여 평에 보라색 자운영 꽃이 만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해 친환경 쌀을 비롯해 북한의 지명을 적은 향아리에 화살을 던져 넣는 통일 투호놀이, 친환경농산물에 자라는 나뭇가시 채취 등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친환경 쌀을 원료로 인절미를 만들어 시식·판매하며, 그 인절미를 만들 때 절구로 내리치는 딱배지기, 직접 재료를 갈라 자운영화전, 파전 등 봄나물 맛을

백제불교 영광 전래 1,600년만에 재현

'1천600년 전 백제 불교의 숨결을 그대로 느껴보자' 중국으로부터 백제불교가 영광군에 들어오는 '상향'이 1천600여년만에 중국과 영광 현지에서 재현된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저장(浙江)성 Ningbo(寧波)시에서 서기 384년 인도 승려 마라나타가 법성포에 타고 온 것으로 고증된 배 출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기희기자 song@

이날 출항식에는 김병영 영광 군수와 불가사주지 만담 스님, 천동사 스님, 현지인들이 참석했다. 이어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승화 사업 준공식을 갖는 5월 13일 법성포에서 입항식을 갖는다. 이 같은 '백제불교 도래 상향 재현'은 전남도가 1997년 학술유역을 통해 마라나타가 384년 법성포에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했다는 고증을 근거로 이뤄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백제불교 전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재현 행사를 갖게됐다"며 "영광을 국제적인 불교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희기자 song@

Movies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movies.

Teen Cinema advertisement for 'My Love My Dream'.

Cinema advertisement for 'My Love My Dream'.

Movie advertisement for 'My Love My Dream'.

Advertisement for Columbus Cinema.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eok-dong hous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lgong-dong hous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Mingong-dong hous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igh Rank Consulti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onwon Gongin Jeonggasa.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il Ji-do (주).